



불타는 연평도 23일 오후 북한군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 100여 발의 해안포와 곡사포를 발사해 연평도 곳곳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연평도에 100여발 포격

광주·군산 출신 해병 2명 사망... 민간인 3명 포함 19명 중경상

軍 80여발 대응 사격

북한군이 23일 오후 2시34분부터 2시55분까지, 1시간가량 서해 연평도 북방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 해안포와 곡사포 100여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으며 우리 군도 80여발 이상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군의 도발로 광주 출신 서정우(21) 병장과 전북 군산 출신 문광욱(20) 등 해병대 병사 2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마을 주민들도 방공호로 대피했으나 주민 3명 부상했으며 추가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한데 이어 해안포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2시34분부터 2시55분까지, 오후 3시10분부터 4시42분까지 해안포와 곡사포 100여발을 연평도에 발사했다.

합참 이봉우 공보실장은 "우리 군이 호국훈장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으로 실시하던 중 북한이 수습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 수발은 연평도에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연평도에 산불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해안포 기지가 있는 육상으로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으며, 추가 도발을 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방송을 실시했다.

군은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연합사



서정우 병장

령부와 연합위기관리태세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위기관리가 선포되면 대북 정찰·감시태세가 평소보다 강화되고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포콘' 격상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5시55분 남북장성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하고 경고 후에도 계속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북측은 오전 8시20분 우리측에 "남측이 북측 영해로 포사격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했다. /연합뉴스

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북한군의 해안포 여러 발이 연평도 민가에 떨어져 곳곳에서 불이 났고 주민들은 면사무소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섬에 마련된 방공호 등으로 대피했다. 또 연평도 지역 배전선로 2개가 화재로 끊어지고, 924가구 가운데 420호가 정전 상태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후 7시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은 것에 대해, 우리 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최고 사령부는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관한 '보도'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3일 13시

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김홍기자 kimho@연합뉴스

광주일보 신춘문에 공모

단편소설·시·동화... 12월15일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래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화정신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0년 12월15일(15일자 소인 유효)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보내실곳: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062-220-0680)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연락처 가능한 전화번호·주소·e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시십시오.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복투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11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www.kgrc.ac.kr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0.11.04-12.02
고구려대학 입학문의
061-330-7323-5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정시모집 12월17일~22일
가 군원사접수
각대학원 원시접수 11월 2일~23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명백한 무력도발 단호히 대응”

이대통령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에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한 참모진과 합참의장,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 박정하 춘추관장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확언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내린데 이어 회의 말미에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합참으로부터 민간인 대피가 완료됐고 우리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한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김태영 국방장

관, 김성환 외교장관, 현인택 통일장관 등이 참석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에 들어갔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명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며 “더욱이 민간인에 대해 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어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였으며 추가 도발시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이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홍식 국무총리는 이날 전 공무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북한의 도발로 국회 예결위가 중단됨에 따라 곧바로 정부중앙청사로 복귀, 긴급 회의를 갖고 내각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청도 이날 오후 3시15분을 기해 인천지방경찰청에 최상위 비상령인 ‘감초 비상’을 발령하고 나머지 경찰관서에는 경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야구장 건립 국비 30% 지원

문광부 “스포츠토도 수익금 5% 적립 충당”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광주 야구장 건립에 스포츠토도 수익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안 의원(광주 남구)은 23일

“문광부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적립되는 스포츠토도 수익금 5%를 광주야구장 건립에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광주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는 대로 총사업비(1000억원 추산)의 30%를 3개년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야구장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은 향후 예산심의의 거치지 않고 문광부에서 자동으로 배정할 예정이어서 국비확보가 훨씬 더 순조로운 전망이다.

장 의원은 지난 10월4일 국정감사를 통해 무등야구장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유인촌 문화부장관으로부터 국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예산심사에서 확답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는 현재 무등경기장 내 축구장 시설을 2만5000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총사업비의 30%는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KBO 및 기아구단과 광주시가 분담한다.

장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는 향후 5년간 스포츠토도 수익금의 5%를 적립해 1000억원을 마련한 뒤 지방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광주야구장을 개보수로 봐야 할지, 신축으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었다”며 “수익금 배분 기준은 지원효과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다른 공공체육시설보다 시민이용률이 높은 무등야구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같은 결실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OP:ART SUPERSTAR KEITH HARING GWANGJU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展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2010.12.08 - 2011.02.27

주최 | 광주일보 gma 광주시립미술관 매일경제
주관 | Amherst 엠허스트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미국대사관 UNICEF 한국국제협력단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